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h@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전례주년의 구성

[제1독서]..... 이사 62, 1-5

[화답송] 시편 96(95), 1-2, 7, 2, 3-7, 9, 9와 10, 7, 10 (◎ 3 참조)



(후렴)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제 2 독서] 1 코린 12, 4-11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2 테살 2,14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2,1-11

[성가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77] 만나를 먹을 이스라엘 백성
- 파견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김 춘은 요셉	김 린다
노 의선 프란치스코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가족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연령회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윤요한, 루시아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영우, 이 태묘	이 상홍 스테파노
손 우찬 시몬 (영혼을 위하여)	윤 루시아
대니 네런 (Danny Nairn)	김 유진 가족
생미사	봉헌
박 아그네스	박 알버트
이 영애 레지나	이 병국
이 영애 레지나	이 미진 조앤그레이스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이 영애 레지나
김 가롤로 신부	진 정은 마리아
김 진열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	조 미카엘, 조데레사
박 티모테아 수녀	진 정은 마리아
박 티모테아 수녀	조 미카엘, 조데레사
유 데이빗, 유 데니엘, 유 케이디	유 희순 그레이스
김 금옥 (영.육의 건강 위하여)	정 희자 리드비나
이 한우 베드로	김 재운 사도요한
김 길환 베다스토	울드레아
공동체 설립25주년 기념 추진 위원들 위하여	울드레아
정 봉애 카타리나 표 해심 카타리나 서경자 율리아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월16일	정동주 유스토	박기목 알버트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이영혜 안젤라	조소연 마르티나	신혜정 소화 데레사
1월23일	김진섭 야고보	방유진 그라시아	김은아 미카엘라	방유진 그라시아	김지영 유스티나	한창희 바오로	이지연 안젤라

● 2022년 주보 광고 신청 (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5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

- 오늘, 1월 16일 미사 후 2층 교리실에서 있습니다.

● 1월 30일에 봉헌될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 받습니다.

- 올해 설 명절이 평일인 (2월1일, 화) 관계로 앞당겨 주일에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 전례회의 있습니다.

- 1월 17일(월) 오후 5시

● COVID - 19 '오미크론'의 확산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 특징이라니 더욱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1월 10일부터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11:30 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5주년 기도문
(1997. 3. 2. ~ 2022. 3. 6.)

좋은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걸어온
맨하탄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편 127)는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음은
당신의 은총 덕분임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오니,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써 온
모든 형제들, 자매들,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당신 나라 건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당신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 5,13-14) 계속하여
당신의 좋으심을 증거 할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당신 안에 하나 되게”하시며,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가는 곳마다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동희(헬레나) |
| 김용기(요셉) | 지군자(스테파니) |
| 정창동(폴리나) | 진정은(마리아) |
| 고종호(마태오) | 이진자(세실리아) |
| 홍봉운(바오로)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

[2022년 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 받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요한 2,1-11)

요한이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많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은 '상징의 책'에서 일곱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 주는 표지'입니다. '혼인잔치'가 표지라면, 또한 '포도주를 많게 한 것'이 표지라면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 받으셨다는 '혼인잔치'는 오늘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구원의 날을 상징합니다. 제2이사야가 '승리의 날'로 바빌론 유배의 끝을 예언했다면 오늘 독서의 저자라 믿어지는 제3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후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영적쇄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뤄지는 구원을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결합을 상징하는 '신랑이신 하느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 코린토1서는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날과 그 풍요로움을 묘사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경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식별, 방언, 해석의 능력과 같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가 공동선을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며, 이 열매들이 모두 하느님을 가리키는 상징들이니,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님은 '곧 도착하실 하느님'을 보여주셨다는 뜻에서 상징입니다. 또한 '좋은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요롭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기쁨과 관대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18항은 '이 혼인잔치는 또 다른 잔치, 당신의 신부인 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시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은 간구하는 기도의 모델이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특 쓰는 영성

미워도 다시 한 번

살아가면서 하기 힘든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사랑은 잘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것만으로 심리적 보상을 받는데 비해 미움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뿜어내는 분노는 자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부터 초토화 시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동조해주고 뜻을 거스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신과 의견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상대방을 싫어하게 되면 상대를 기분 좋게 해 줄리 만무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미움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면 더 미운 짓만 골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움은 미움의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건된 모든 것이 다 미워집니다. 남편이 미우면 벗어 놓은 옷까지 미워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부메랑처럼 한 번 던져 놓으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움은 너무 오래 간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씨 노래 중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미운 놈 딱 하나 더 주라고 했습니다. 미움의 부메랑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예방하기란 말입니다. 미움은 없애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품고 살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매일 매일 해소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재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장희빈'하면 희대의 악녀로 유명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읍소로 결국 장희빈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가져간 병사가 장희빈에게 마실 것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럴 리가 없다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장희빈이 말하길 "좋다. 마시겠다."며 정말 임금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임금님의 뜻은 그 사약 그릇 밑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 그릇 밑을 보니 거기에는 왕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 샷~"